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6
----------	-----

발의연월일 : 2020. 6. 17.

발 의 자 : 신동근 · 김정호 · 정청래
장경태 · 고용진 · 인재근
최인호 · 박상혁 · 소병훈
김희재 · 김철민 · 김윤덕
안규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 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u>3년</u> ----- ----- <u>3천만원</u> -----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